

2019 새 설계

김 종 식 목포시장

“목포 ‘味·島·樂’으로 관광객 1000만시대 열겠다”

〈미·도·락〉



“1897년이 항구로써 목포 개항이라면 2019년은 목포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연 ‘제2 목포개항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2 개항”을 신년 화두로 삼은 김종식 목포시장은 “제2 개항은 첫째 맛(味)으로 열리고, 둘째 섬(島)으로 열리고, 셋째 락(樂)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며 “기존 순천·여수 등 동부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남 관광의 축을 반드시 서부로 돌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먼저 4월(시기는 해상케이블가 개통 일주일 전) 중에 서울시장 앞 광장서 대대적인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을 열 계획이다. 이것이 미(味)다.

목포 출신 개그맨 박나래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목포 9미를 중심으로 ‘목포 맛 자랑’ 판을 벌여서 목포를 한번 멋지게 팔아먹겠다는 김 시장의 구상이다. 이 행사는 서울대 푸드 비즈 연구소 특별자문을 받아 진행된다.

6월에는 목포의 대표 섬인 외달도·달리도가 국제 슬로시티 가입과 인증을 받아 슬로시티로 거듭나게 된다.

또 8월 8일 제1회 섬의날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과 평화의 상징성을 지닌 삼학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섬의 날’ 기념행사를 신안군과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4월 서울서 ‘맛의 도시 목포’ 선포

원도심 재생·어촌 뉴딜사업 박차

환서해권 경제벨트 핵심으로 육성

김 시장은 “섬의 날을 제정하게 된 발상지가 목포고, 신안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섬을 거느리고 있다. 또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이라는 상징성까지 갖춰 목포 삼학도가 최적지”라고 당위성을 폈다.

외달도 국제 슬로시티 가입과 섬의 날 목포 선언이 도(島)다.

9월과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를 한데 버무려 매주 금·토·일요일에 집중 개최(문화예술 통합브랜드)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킨 ‘남만항구 목포 가을로의 여행’ 이 락(樂)이다.

이 같은 ‘미(味)·도(島)·락(樂)’ 마케팅을 통해 1000만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게 그의 전략이다.

김 시장은 “경쟁력 있는 목포 맛을 관광자원화해 ‘맛의 도시 목포’ 명성을 회복하고,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인 목포 원도심 재생사업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재생 성공 모델로 만들어 위대한 목포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목포시가 제2 개항과 함께 전남 제1의 도시로써 명성을 되찾는 중차대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남만항구 목포’, ‘맛의 도시 목포’, ‘1000만 해양관광도시 목포’ 등 3대 슬로건을 자산 삼아 “목포를 뿌리까지 팔아먹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김 시장은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케·문·도·락(케이불가+문화유산+도시재생+맛의도시)’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하드웨어라면 ‘목포 사랑운동’은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포사랑운동은 기존 환경정화 활동이나 캠페인과는 차원이 다른 ‘친절, 질서, 청결, 나눔’ 등 4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 개혁 수준의 강렬한 시민의식 혁신 운동”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1890억원의 대양산단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민선 7기 임기 내 총 70개의 기업을 유치해 대양산단 분양을 100%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제1의 수산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목표다.

2019년도 주요 사업은

▲맛의 도시 목포 선포

▲국제 슬로시티 가입, 섬의 날 목포 선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서남권 수산식품 융·복합 벨트 조성

▲어촌뉴딜 300사업

목포와 서남권을 환서해권 경제벨트의 핵심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놔다.

김 시장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된 한반도 경제영토에서 목포는 환서해권 경제벨트의 출발점”이라며 “목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서남권 경제통합을 실현해 환동해권의 부산처럼 확고한 광역적 입지를 갖춰 가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물론이고 지금 주목받는 모든 혈액의 중심에 목포가 있다”면서 “정부도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며 낙후한 호남 성장에 뒤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이 기회를 살려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목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목포국제축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국민체력 100’ 사업의 우수기관에 선정돼 포상금을 받았다. 체력증진 교실 모습. <목포국제축구센터 제공>

목포국제축구센터 ‘국민체력100’ 우수기관 선정

목포국제축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국민체력 100’ 사업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6일 축구센터에 따르면 2018년도 운영 성과평가에서 전국 43개 센터 가운데 2위를 차지해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국민체력100사업은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국민 무상 체육복지서비스다.

축구센터의 목포체력인증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6400여명의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

동처방을 실시했고, 250명이 8주간 진행된 운동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윤재공 축구센터 대표이사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보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된 목포체력인증센터는 최근 5년 동안 국비 8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2만4000명에게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해 지역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 역대 최대규모 인사 단행 600여명 이동 ‘젊은 조직’ 탈바꿈

젊은 동장 대거 발탁

주요 보직 전진배치

민선7기 목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단행됐다. 상반기 정기 인사와 맞물리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600여명의 이동이 이뤄졌다.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일선의 젊은 동장들을 대거 발탁해 분청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시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점이 꼽힌다.

그동안 선배들을 예우하기 위해 6개월 국·과장 등이 지속돼 왔지만 이번 인사에서 ‘활력넘치는 조직’에 방점이 찍히면서 앞으로 상당기간 목포시 조직이 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양산단 분양의 핵심부서인 기업유치실장과 올해 맛의 도시 선포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관광과장 자리에 여성 사무관을 전격 발탁한 점도 눈에 띈다. 격무 부서에 전진 배치해

역량을 발휘하면 차기 인사에서 여성 국장을 임용하겠다는 김 시장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파격적이다. 신선하다”는 반응과 함께 “사무관급 이상 인사는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그동안 인사가 발표되면 노조 홈페이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비난의 글이 쇄도하는 등 항상 뒷말이 무성했지만 이번처럼 조용한 경우도 드물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2019년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여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원년의 해로, 급변하는 경제와 관광산업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리드할 젊은 동장들을 대거 발탁해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하게 됐다”며 “사무관 임용 기간은 짧지만 신임 과장들의 젊은 감각이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목포수협 위판 초매식...풍어만선·무사안녕 기원

2019 기해년 희망찬 한 해의 시작을 여는 목포수협 위판초매식이 지난 2일 오전 5시 목포수협 위판장에서 열렸다. <사진> 초매식 행사에는 목포수협 임·직원과 어업인을 비롯해 김종식 목포시장, 박지원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김명진 목포해양수산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풍어만선과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또 설립이후 최대 위판금액 1835억 달성으로 2년 연속 위판기록경신을 축하하

고 우수어업인과 중도매인 등 위판관계자 40명에게 상패와 상품권을 전달했다.

김청룡 목포수협조합장은 “최고의 시설과 투명한 위판질서 확립으로 전국에서 상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많이 찾는 선진 위판장으로 도약 할 것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어업인 지원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

/목포=김춘석 기자 kjs0533@



(주)금호주택

GUMH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문의 (062)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원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원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 신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